

둥굴레



줄기 중간 잎 거드랑이 마다 한 두 송이씩 종모양으로 늘어져 피어나는 둥굴레 꽃은 끝은 초록, 몸통은 흰빛을 띤다.

정 연 권 구례군 농촌지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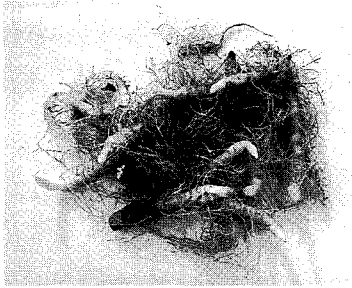
■

절엽·분화 등으로 개발가치가 큰 둥굴레. 그늘에 강하고 가꾸기 쉬운 이 속근초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요즘의 도시인들에게 썩 잘 어울릴 것 같다. 봄마다 새순이 올라오는 모습이 더없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화분에 심어놓으면 시원한 대나무 숲속을 거닐듯 고결함마저 느껴지는 우리 자생꽃이기 때문이다.

■

둥굴레(*Polygonatum odoratum* var)는 백합과에 속하는 내한성 속근초다. 잎이 아름다와 옥죽(玉竹)이라고도 한다. 주로 일본에서 도입한 무늬둥굴레는 명자백합(鳴子百合)이라고 부르고 있다.

절엽, 분화 및 분경, 화단, 생약등으로 이용한다. 화분에 심어 관리하면 시원하고 고결한 대나무 숲을 보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절엽은 꽃꽂이 소재로 사용되는데 수명이 길고 동양적인 모습을 지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생약명으로 '황정'인 등굴레 뿌리는 매듭이 지어져 있고 대나무 뿌리처럼 옆으로 뻗어나간다.

종류 · 특성 · 성분

등굴레의 종류와 특성은 표1과 같다. 초장이 30~60cm이고 잎은 호생하며 대나무 잎을 닮았다. 줄기는 곧게 서는데 윗부분은 비스듬히 기울어지고 가지는 치지 않는다. 무늬등굴레는 잎가에 흰색이나 노란색의 무늬가 있어서 더욱 아름답다.

꽃은 줄기의 중간부분 잎겨드랑이 마다 한 두송이씩 종모양으로 늘어져 핀다. 꽃의 크기는 약 2cm 정도로 작고 끝은 초록빛이며 몸통은 흰빛을 띠고 있다.

자양강장 효능지닌 '황정'

뿌리는 매듭이 지어져 있고 대나무 뿌리처럼 옆으로 뻗는 성질을 지녔다. 생약명으로 황정(黃精)이라 한다. 자양강장 및 지갈의 효능이 있어 허약체질, 당뇨, 심장쇠약, 협심증, 빈뇨등에 사용된다. 흉년이 든 해에는 구황식물로도 쓰였으며 된장이나 고추장 속에 장아찌를 해서 먹기도 했다. 술을 담으면 미색을 띄면서 더덕향기 비슷한 좋은 약술을 마실 수 있다. 등굴레술은 지상부가 고사한 10월 하순이나 11월초순에 캐서 깨끗이 씻은 후 1kg에 소주2병(대두)기준으로 담근후 서너달 후에 마시면 좋다.

표1. 등굴레의 종류와 특성

종 명	분 포	착화수	화 색	개화기	초장(cm)	용 도
등 굴 레	한·중·일	1~2	상록하백	6~7	30~60	절엽, 화단, 줄기에 능이 있음
무늬등굴레	일 본	1~2	녹 색	4~5	50~60	절엽, 분화, 화단, 줄기에 능이 있음
통등굴레	한 국	3~7	담 록 색	5~6	30~80	절엽, 화단
진 황 정	한 일	3~5	청 백	5~6	50~80	절엽, 화단, 줄기에 능이 없음
죽 대	한 국	1~2	녹 백 색	5~6	30~60	절엽, 화단
각시등굴레	한·중·일	1~2	녹 담 황	5~6	15~30	화단, 정원, 분경

내한성 강하지만 건조엔 약해

둥굴레는 내한성은 강하지만 내서성과 건조에는 약한 편이다. 늦가을이 되면 지상부는 말라서 죽고 휴면에 들어간다. 휴면은 2~3℃에서 45일 처리하면 타파된다. 생육적온은 15~20℃이다. 생육촉진에는 일장 보다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절엽재배

재배적지 표고 300m정도의 준고냉지나 여름에 시원한 곳이 품질 좋은 둥굴레를 생산할 수 있다. 배수가 잘되는 사양토, 양토가 좋고 토양산도는 5.5~6.0정도의 산성토가 좋다.

작형 재배작형은 그림1과 같이 노지, 반촉성, 촉성 및 억제재배가 있다. 노지는 준고냉지가 좋고 반촉성재배가 경영상 유리하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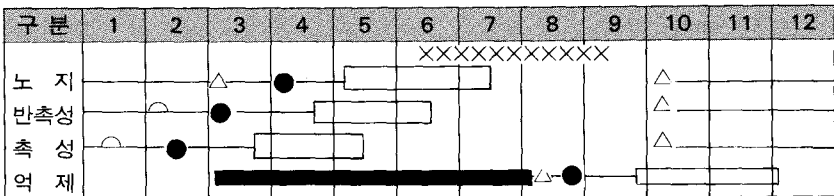
우스 설치후 둥굴레를 정식한다. 1년차에는 가급적 수확하지 말고 번식시킨 후 휴면이 끝나는 2월중 순경에 비닐을 피복하고 부직포 등으로 보온하여 4월하순경부터 점차 출하하는 것이 소득면에서 나은 편이다.

번식 번식방법에는 실생과 분주가 있다. 실생은 가을에 종자를 따서 파종상에 즉시 파종하거나 노천매장해 두었다가 3월중하순경에 산파하여 육묘한다. 그러나 무늬둥굴레는 실생으로 번식하면 무늬가 없어지므로 하지 않는다.

분주는 10월상순경이나 새싹이 트기 전(3월상중순)에 실시하는데 3축(눈)을 한포기로 쪼개서 심는다. 눈이 크고 좋은 것은 2축을 기준으로 해도 좋다. 번식속도는 1년이 다음해 3눈으로 되는데 1년에 3배정도로 증가된다.

둥굴레 뿌리의 가격은 무늬둥굴레는 촉당 150~200원씩 거래되고

그림1. 둥굴레의 재배작형



△ 정식 ● 발아 × 차광망 ○ 비닐피복 ■ 저온처리 □ 절엽

한여름 직사광선을 피해 30% 차광망을 설치하여 관리한다(6월중순~9월 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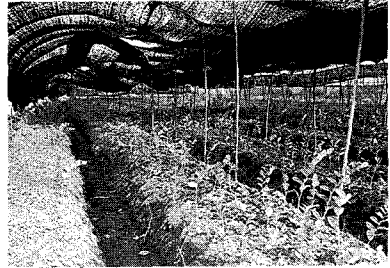
일반동굴레는 근당 600~800원씩 거래되고 있다.

정식 한 곳에서 3~4년이상 재배하게 되고 다비성이므로 완숙퇴비 3,000kg 이상, 18-18-18 복비 100kg을 넣고 잘 경운한 다음 그림 2와 같이 3조식 또는 2조식으로 3~4cm의 깊이로 심는다. 정식후 왕겨나 톱밥으로 멀칭하여 건조와 잡초를 방지토록 한다.

기타관리 새순이 올라오는 신장생장기에는 건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점적관수나 분수호스로 관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초는 철저히 하도록 한다.

한여름 직사광선은 일소현상을 일으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므로 30% 차광망을 설치하여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관리토록 한다.

2년차 이후는 새순이 발아하기



전인 3월중순경 잡초를 제거하고 유기질비료나 18-18-18복비를 뿌린후 관리를 이용하여 복토하고 제초제를 살포한 후 멀칭한다.

가지가 밀생하면 품질이 저하되므로 새순이 올라올 때 사방 5cm에 한 눈이 남도록 한다. 나머지는 관리는 1년차와 같다.

녹병, 탄저병, 청고병등이 발생하는데 환기를 잘 시키고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기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하고 응애 및 진딧물도 방제해야 한다.

수확 꽃이 진후 경엽이 어느정도 성숙하면 (개화후 약 20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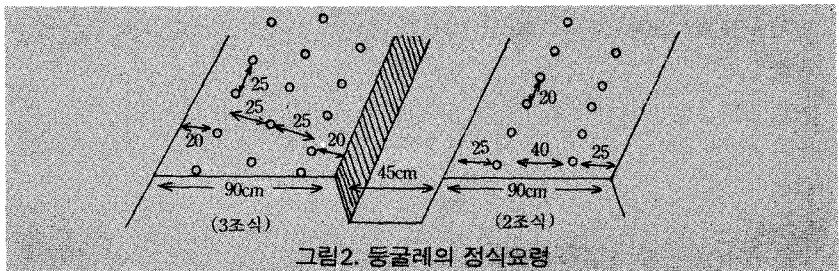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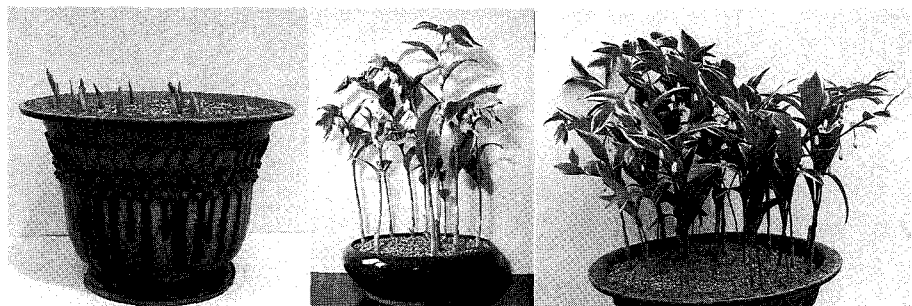


그림 2. 동굴레의 정식요령



발아한 등굴레

1년된 분화

3년된 분화

과후) 손으로 뽑아서 수확한다. 일찍 수확하면 흡수치 않으므로 주의한다. 뿌리생육을 위해 1/3정도는 남겨두고 10대를 1속으로 묶어 출하한다.

분화 · 분경재배

화분용토는 마사와 부엽을 7:3의 비율로 배합해 쓴다. 정식은 새순이 돋기 전인 봄이 좋다. 균식해 놓으면 대나무 숲을 연상할 수 있다. 직경 30cm 정도의 평분에 8~9개의 분주묘를 심는다. 심을 때는 뿌리가 서로 닿지 않도록 하며 4~5일에 한번쯤 물을 준다.

통풍이 잘되는 반그늘에서 관리한다. 거름기가 많으면 도장하여 보기 싫게 되므로 한달에 한번 정도만 액비를 준다. 하미포박스등 제4종 복비를 엮면 시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봄에 새순이 올라와 잎이 피기 직전에 액비를 한번 주고 화분이 건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9월하순이나 10월 상순경에 지상부가 마르면 노지에서 비를 맞히고 극히 건조하지 않도록 가끔 물을 주도록 한다. 분갈이는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는데 봄에 분주하면서 실시한다.

화단재배

화단에는 반그늘이나 나무밑에 20cm간격으로 5점식이나 담밑으로 균식하는 것이 좋다. 화단용토는 산성토양이 되도록 하며 관수에 주의한다. 잡초방지를 위하여 톱밥을 깔아 놓으면 화단이 깨끗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건조방지와 비료효과까지 있다. 기타관리는 절엽이나 분화재배에 준하여 한다.